

시험과 시련을 통한 깨달음

[짧은 말씀 묵상집 (12)]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

'주님,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상 25:26, 31)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야 합니다(약 1:18; 21, 22).

마음이 겸손한 자는 ...

자기 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깁니다(빌 2:3).

마음이 녹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듣는 순간 "곧 마음이 녹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수 2:10-1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5:1).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에 백성 중 3,000 명쯤 올라갔다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7:1, 11-12)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했을 때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되었습니다(4-5 절).

이방인 라합과 이방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아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아이 군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로 인해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되었습니다.

막힌 길과 열린 길을 통해 얻는 교훈

요즘 저희 교회 앞 길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이 Monroe 인데

교차로는 Vermont 길이란 크고 넓은 길과

Madison 이란 작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주로 시(city)에서 나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Vermont 길에서 Monroe 길로 들어오는 입구를 다 막아 놓고,

그리고 Madison 길에서 Monroe 길로 들어오는 입구는

반(half)만 막아 놓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교회에 들어올 때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Vermont 길로 오다가

저희 교회 앞길인 Monroe 길이 막혀있는 줄 알기에

그 전 길에서 우회전을 하던지 해서

Madison 길에서 좌회전해서

Monroe 길에 반 열려 있는 입구로 들어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두 어번은 깜박하고 계속해서 Vermont 길로 오다가

Monroe 길이 막혀있는 것을 보고서야

지나서 그 다음 길에서 우회전을 해서 빙 돌아서

Madison 길로 해서 Monroe 길에서 우회전을 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ㅎㅎ

제가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이 삽화(illustration)가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6 장 6-10 절을 설교하면서 생각났습니다. 하하.

성령님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므로"라는 말씀과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

(6, 7 절, 현대인의 성경)에 대한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적합한 삽화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교훈은

제가 만일 Vermont 길과 Monroe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서(길 앞에서) 시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막아 놓은 것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차를 그 앞에 세워놓고 그 막힌 길로만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것은 미련한 행동인 것처럼

성령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등 바른 목적과 동기를 바울처럼 가졌다고 해도)을 막으실 때에

미련하게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처럼

"...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막 14:36)

저 또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교훈은

제가 Vermont 길에서 Monroe 길이 막힌 것을 보자마자

돌아서 Madison 길로 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을 때

열어주시는 다른 길,

즉 성령님께서 저를 멀리 돌려 인도하실 때에(출 13:17-18)

그 멀리 돌려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부분 왜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멀리 돌려 인도하시는지

제 명철로는 결코 이해가 안될지라도

저는 제 명철(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므로(잠 3:5-6)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계 17:14)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폐가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요 19:19).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도(눅 2:7)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신성모독 죄로(요 10:33)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신 21:23; 갈 3:13)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폐를 십자가에 붙이게 했다는 사실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만일 사탄의 유혹에 내 배우자가 빠졌다면 ...?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의 뼈와 살을 치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탄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한다면 ...?
(욘 2:4-10)

만일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 15:30, 31).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이라면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많아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면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물(물질과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과연 그래도 우리는 옴처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욘 1:9-22)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 할 것입니다

(민 14:41).

많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호 4:7).

우리 성도들은 물질과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10:1).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11:2).

많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 기도 = 형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참고: 대하 26:5).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 4:10).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창 21:1-2, 4).

매우 경계해야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내가 높임을 받아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에 5:11).

매우 위험한 질투

미련한 자의 분노는
질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잠 27:3-4, 현대인의 성경).

면책해 주는 친구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오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 27:5-6).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의 "입맞춤"과 같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범죄하고 있을 때
저의 죄를 덮어주므로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보다
저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하고자
저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면책해 주는
친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친구의 면책이 비록 제 마음에는 상처가 되겠지만
그 상처는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그 상처로 인하여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을 때(느 2:18)
그들의 대적들은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습니다(19 절; 4:1, 4).
그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고 있었을 때(4:6)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7-8 절).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9 절).
그들은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14 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으로 공사를 감당했습니다(20-21 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되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롬 8:28-29).

모든 일에 절제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자(막 8:35; 고전 9:25).

"모세"가 "건져냄"

"모세"란 이름의 뜻은 "건져 냄"입니다(출 2:10).

그가 애굽에서 40년 살면서 "장성한 후에" "고되게 노동하는"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 중 한 사람을 그를 치는 "어떤 애굽 사람"에게서 건져 냄에 있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죽"였습니다(11-12 절).

그런데 그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낸 그 히브리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13 절).

즉, 그 히브리 사람은 자기 "동포"인 다른 히브리 사람하고 서로 싸움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이란 말입니다(13 절). "그 잘못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말했습니다(14 절).

"그 잘못된 사람"의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 형제"를 건져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이 탄로"가 나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습니다(15 절).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 왕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사

그의 이름의 뜻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도구로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출 3-4 장).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여서 듣고 배워 지켜 행해야 하는데 ...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 31:11-13).

목사는 ...

목사는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 중보기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은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순종해야 합니다(레 10:1).

그렇지 않을 때 목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2 절).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3 절).

결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사는 주님의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4 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직계 가족 식구들이 아닌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이 아론의 두 아들의 시신을 진 밖으로 메어간 것을 두고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

주님의 일에 전무하되 목사는 직계 가족의 죽음 속에서도 슬퍼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6 절
-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박윤선).

목사는 분별력을 잃게 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9-10 절).

목사님,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있으세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삼상 2:29)

목사님에 대한 신뢰는 ...

목사님에 대한 신뢰는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가능합니다(출 19:9).

목사님은 ... (1)

목사님은
풍성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민 24:13).

목사님은 ... (2)

목사님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해야 합니다
(민 25:11, 13).

목사님을 거스르는 교인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거스르는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분수에 지나고
또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에게
분수가 지나다고 말하고
또한 그가 스스로 높인다고 말합니다
(민 16:3, 7).

무심코 쏘는 화살과 같이 내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

참 선지자 미가야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대하 18:13)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참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보기에 미가야는 자기에 대해서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7, 17 절).

그 말은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불순종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는 자기에 대하여 좋은 일로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5, 9-11 절).

그런데 그는 인척 관계를 맺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1-2 절) 했을 때 400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지 않고

여호사밧 왕의 권면으로 참 선지자 미가야의 자기를 향한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말도

들었습니다(14-23 절).

그런 후 그는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는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게 한 것을 보면(28-29 절)

그는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자기에게 재앙이 임할까봐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22 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는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게 하셨습니다(33 절).

그 결과 아합 왕은 맹렬한 전쟁에서

병거에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습니다(34 절).

그는 적군의 무심코 쏘는 화살에 맞고 나서 죽기 전까지

자기에 대해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한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그는 자기에 대해 좋은 일로만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듣기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거짓 목사의 거짓 설교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져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주님의 참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주님의 종이 무심코 쓰는 화살처럼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기보다
그 과정에서 오는 불순종의 결과로 겪는 고통으로 인해
그 고통이 없는 과거의 상황을 만족하게 여기길 좋아하는 게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수 7:7).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걷고 있던 바른 길을 버리고

어리석음의 길을 택하여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잠 9:14-15, 18).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택하여 결국에는 생명을 얻습니다(6 절).

무엇을 보고 책임을?

기업 무를 자 보아스는

"현숙한 여자"인 롯을 보고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그녀에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지만(룻 3:11, 13)

"기업 무를 자로서" 보아스 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12 절)

그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인(3 절) "밭"을 보고(5 절)

"내가 무르리라"고 말했다가(4 절)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5 절)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6 절).

미련한 남편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미련한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삼상 25:25, 33).

미련한 남편과 사는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함께 살까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속히 행동으로 옮기면서
자기의 미련한 남편에게는
말하기를 더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미련한 남편의 "죄악을"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삼상 25:17-19, 23-24, 36, 41; 참고: 약 1:19).

미련한 자에게 당한 나의 모욕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값아 주실 것입니다
(삼상 25:39).

미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미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 (겔 29:14-15)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되지 않게 하여주시니(16 절)

하나님께 감사 ...

미워하는 이유/미움 받는 이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빛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기[들춰내기(expose)] 때문입니다

(엡 5:11).

믿어야

믿어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119:66).

믿음과 순종의 관계?

성경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14, 17, 20, 26)..

또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며(렘 42:6, 14, 2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11:6).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 22:39; 요일 3:23).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내 명철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자(잠 3:1).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 판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3 절).

그 결과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5-6 절).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6 절).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할텐데 ...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그 형제/자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전 8:12).

바라바 보다 더 큰 죄인 예수?

어떻게 그 무리들은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인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도 큰 소리로 재촉한 것일까요? (눅 23:23, 25)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바라바 보다 더 큰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죄였지만
예수의 죄는 신성 모독죄요(5:21; 마 11:27; 27:43)
또한 성선 모독죄(요 2:19)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지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말

나를 꾸짖을 생각만 하는 친구,
그 친구의 옳은 말로 인해 실망한 나,
실망한 나의 말이 그 꾸짖은 친구에게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욘 6:25, 26).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
돈을 좋아하는 목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목사,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목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
(눅 16:14-15)

(스티브 엄의 "예수님과 돈"이란 글을 읽으면서)

바사 왕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사
그를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에스라 1 장)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일까?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자 앞에서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큰일을 행하며,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삼상 26:20-25).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을 때

무거운 재앙으로 인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고
또한 "내게 걱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나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를 것이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욥 23:2-3, 8-14).

발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 발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 119:59-60).

배우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때와 들어야 할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래가 자녀를 얻고자
자기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창 16:2).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15:4)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21:2-3).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래가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자랄 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8-12 절).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것"인
"여러 나라의 풍습"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렘 10:2-3, 5).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

위로는 커녕 우리 마음을 번뇌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욘 19:2).

그들은 말로 우리를 꺾습니다(2 절).

그들은 우리를 꾸짖습니다(3 절).

그들은 자기들의 허물은 못보고 우리의 허물을 보고 꾸짖습니다(4 절).

심지어 그들은 우리 앞에서 자긍합니다(5 절).

다 우리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입니다(16:2).

번제 나무를 번제물에게 지운다?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길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한 것이 말입니다

(창 22:1-6).

왜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번제물인 이삭에게

지우게 한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보아스와 롯에게서 배우는 부부 관계 원리

보아스는 롯이 이방(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룻 2:5-9, 20).
남편은 자기에게 이물질 같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남편인 그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롯은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사랑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10 절).
아내는 '나는 죄인이거늘 ...'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남편이 사랑해주는지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롯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쁘게 했습니다(11-12 절).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며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롯은 보아스의 마음의 위로와 기쁘게 하는 말을 듣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며 구했습니다(2, 13 절).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겸손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자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롯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고자 그의 종들에게 그녀를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고 하고
그녀를 도와주게 했으며 그녀를 돌봐줬습니다(14-16, 19 절).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며 또한 아내를 보호하며 도와주며 돌봐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시며
그를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시며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룻은 부지런한 여인이었으며
과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7, 11, 17-18 절).
아내는 부지런하며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셨으며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실 정도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처음보다 더한 인애를 베풀었습니다(3:10).
아내는 남편에게 더욱더 큰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주님께서 그녀에게 처음보다 더 큰 인애를 베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그녀가 말한 대로 자기가 기업 무를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11-13 절; 4:1-13).
남편은 아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약속하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증서는 것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
즉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맥아더).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가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7:18).
그리고 성경은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26).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녀가 그에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삼하 11:2).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요일 2:16).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잠 27:20).

우리는 우리의 눈과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욘 31:1).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에 보게 했고
분명히 다윗은 그녀가 "우리의 아내 밋세바"인 줄 알았습니다.

즉, 다윗은 분명히 밋세바가 유부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더불어 동침했습니다(삼하 11:3-4).

다윗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요일 2:16).

그는 10 계명 중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열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출 20:14, 17).

우리는 이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보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유부녀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삼하 11:2).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3 절).

그녀를 그녀의 남편에게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12:9).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시편 1 편).

복을 누리는 방법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 12:25, 28).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전도자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고전 9:22, 23).

복종시키면 ...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복종시키면
회복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왕하 5:11, 14).

본디오 빌라도와 사도 베드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 번이나 말한 반면에(눅 23:14, 15, 22)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 번이나 부인했습니다(22: 57, 58, 60).

본을 보여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전 4:6).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벧전 2:19-21).

부모가 알고 있는 자녀의 죄악

부모가 알고 있는 자녀의 죄악,
그 죄악은 자녀가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건만
부모로서 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삼상 3:13)

부모는 잘 모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삿 13:16, 14:4).

삼손은 그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 "알려 주지 아니"했습니다(14:6, 9, 16).

부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모릅니다.

부자가 동침하지 말아야 할 여인하고 ...

아버지 다윗은

동침하지 말았어야 할 유부녀 밧세바하고

동침한 반면에(삼하 11:4),

그의 아들 암논도

동침하지 말았어야 할 이복 여동생 다말하고

동침했습니다(13:14).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

이것저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삼하 12:8).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 및 자족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요일 2:16)

남의 소유를 탐내어 빼앗아 자기 소유로 만들므로

(삼하 12:2-4, 9-10; 참고: 출 20:17)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삼하 12:9, 10)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11:27).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시 23: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34:9).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10 절).

분노 억제

분노를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분노를 억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잠 29:11).

"분노를 풀기 전에는"

"...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겔 23: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했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은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불평을 버려야 하는 이유

분노와 불평,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치고 버리자!
(시 37:8)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장로/집사 노릇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
(마 7:22-23)

불순종으로 인한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났을 때 ...?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인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요나 선지자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 수가 있나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으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배 위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요나 선지자는 불신자 이방인 사공들처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하지 않았나요?
(욘 1:1-5)

불순종하고 있는 목사로 인해 ...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목사인 나로 인해
나와 함께 있는 비신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 ...?
(욘 1:12)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삼상 15:18-22).

불순종하는 자의 가치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 였는데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는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의 가치관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하지

(그 "가장 좋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매우 해로운 것인 줄도 모르고)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삼상 15:3, 9, 22).

불행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전 6:2-6).

불확실함 속에서의 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uncertainty)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certain)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참고: 고후 5:7).

비방하지 말아야 ...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악평한 후
극단적으로 단정하여
소문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성경해설)
(레 19:16).

비성경적인 지도자 선택의 결과?

주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시므로
목사님 홀로 교인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없을 때
함께 짐을 담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인정받는 자들이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며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택하여 세워 교회 지도자들로 삼아야 합니다(신 1:9-18).

문제는 지금 미련하고 무식하며 인정도 못받고
사람을 외모로 보며 귀천을 차별하여 들으며
사람의 낮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택하여 세워
교회 지도자들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우리의 비성경적인 선택의 결과의 쓴 맛을 보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시 12:8).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1 절).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2-3 절).

그러므로 가련한 자들이 놀림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5 절).

그 때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단련할 것입니다(6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입니다(5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7 절).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마 13:19).

뿌리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쁨은 있지만
뿌리가 없기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 13:20-21).

빼돌려진 어머니의 사랑?

어떻게 자신의 돈을 가져간 미가에게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들기 위해"
자신의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말한 후
미가에게 돌려받은 자신의 돈을 도로 그에게 줄 수 있을까요?
(삿 17:1-3)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어머니의 빼돌려진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부활의 권능"(빌 3:10)이란 무엇일까요?

이미(과거) "부활의 권능":

하나님께서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부활의 권능(엡 2:1, 5; 참고: 요일 4:9).

아직도(미래) "부활의 권능":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고전 15:52,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부활"할) 부활의 권능
(살전 4:16, 현대인의 성경; 참고: 롬 6:5).

지금(현재) "부활의 권능":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빌 3:1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10 절, 현대인의 성경)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롬 8:18, 현대인의 성경) "나는 날마다 죽"으므로(고전 15:3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빌 3:10, 현대인의 성경).

사람에게 외면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외면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외면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까지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사 53:3).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눅 18:4).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 편이시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 보다 낫습니다
(시 118:6-9).

사람을 얻는 자유인

사람을 얻는 자유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고전 9:19).

사랑 받지 못하는 괴로움

남편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아내의 괴로움 ...

야곱은 시력이 약한 레아보다 곱고 아리따운 라헬(창 29:17)을 더 사랑하였습니다(18, 30 절).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 받지 못하므로(31 절) 괴로워하였습니다(32 절).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31 절).

사랑과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요일 4:8, 16)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14:6)와

교제하는(요일 1:3) 하나님의 자녀들은(3:1, 2)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3:18)

또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합니다(엡 4:15, 현대인의 성경).

사랑 병(Lovesick)

다시 사랑 병에 걸리고 싶습니다(아 2:5).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3 절).

어린양의 혼인 잔치 집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습니다(4 절).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시원케(refresh)되고 싶습니다(5 절).

사랑에서 질투로 ...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던 사울 왕은(삼상 16:21)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니까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18:6-9).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므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12-15, 25, 28).

사랑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엡 1:3-6).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보다(요일 3:23)
오히려 미워하면(15 절)
우리 속에는 거리낌이 있어야 하며(2:10)
또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해야 합니다(3:20-21).

사랑하기를 거부할 때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요일 3:23)
만일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면서
잡아먹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참고: 창 4:7; 요일 3:14) 틈만 보이면(참고: 느 4:3)
우리 안에 그 형제를 미워하라는 생각을 넣어서(요 13:2)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요일 3:15).

사랑하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 위해선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요 14:2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수 22:5).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막 10:21).

사랑하지 말았어야 할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랑하지 말았어야 할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왕상 11:1-8, 삼손이 생각남).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2, 9 절) "두 번이나"(9 절)
말씀하신대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2, 4, 9 절)
그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9 절).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진리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는 그 지혜는
더 이상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약 3:15).

사망 vs. 영생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 5:12).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6:23).

여기서 "사망"이란

- (1)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영적인 죽음'
- (2)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될 '육체적인 죽음'
- (3)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8 절, 현대인의 성경; 6:23).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6:23).

여기서 "영생"이란

- (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 (2)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
- (3) 주님의 재림 때 몸은 변화하던지(그 때까지 살아있다면) 또는 부활하여(죽었다면) 영혼과 연합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이란 하나님과 "단절", 영생이란 하나님과 "연결"?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롬 5:12). 사망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고전 15:4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빌 2:8) 우리가 선물인 영생을 얻었습니다(5:15, 18; 6:23). 영생이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요일 1:2, 3, 현대인의 성경).

이 교제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으로써 (빌 2:1,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믿음의 교제"요(몬 1:6, 현대인의 성경)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써(행 2:42; 요일 1:7, 현대인의 성경) "서로 사랑"하는(벧전 4:8; 요 13:34, 35; 15:12, 17; 요일 3:11, 23; 4:7, 11, 12; 요이 1:5)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요일 2:5) "기쁨"이 충만합니다(1:4).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할 때에(마 22:37, 39)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로서(빌 3:20)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구원을 이루는 삶이요(2:12),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사무엘과 예수님?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로써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나 부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반면에
(삼상 2:20-21)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후
우리 각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가정 사역, 교회 사역, 인터넷 사역)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전 12:6).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자는
자기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고후 2:5-11).

사탄은 ... (1)

사탄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눅 8:12).

사탄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므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13 절).

사탄은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14 절).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여
인내로 결실케 하십니다(15 절).

사탄은 ... (2)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며

우리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보다

장식품 용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는 것 보다

우리 목숨을 구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막 8:31-36).

사탄은 ... (3)

사탄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 16:23).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행 5:1-3).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실 되지 않고 거짓되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히게 만들고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후 11:3).

사탄의 유혹

첫째로, 사탄의 유혹은 “소동”입니다(행 21:30).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속에서
바울을 붙잡고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피므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총동원하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켜 요란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사탄의 유혹은 “소문”입니다(31 절).

우리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에게까지 들리므로 말미암아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였습니다.
사탄은 악성루머를 퍼뜨립니다.

셋째로, 사탄의 유혹은 “포행”입니다(35 절).

바울이 인술을 받아 느린 걸음으로 진영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가고 있었을 때
군인들은 우리들의 폭력적인 조짐을 포착하고 바울을 들고 갔”습니다(35 절).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언행으로 폭행을 가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사사 삼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방새도록" "조용히" "매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돈(은)으로 매수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려고 심지어 그녀의 "방 안에"까지 매복을 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내가 말하라"고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이 자기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그녀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그녀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을 말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의 힘은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삿 16:1-21).

우리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힘의 근원"을 공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은 주님이신데(시 18:1)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보다

대충 사랑하게 만들므로 주님의 말씀에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과 사랑의 힘이 매우 약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우리를 학대하며 어려운 노동으로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하므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출 1:10-14).

상당한 값을 치루시므로 우리는 값없이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당한 값을 치루시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사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롬 3:24).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주님.

주님,
상심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세요.

주님,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시 147:3, 6).

생각 영역에서의 영적 싸움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있습니다(렘 6:19).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있습니다(16 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19 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10 절).
우리는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10 절).
오히려 우리는 거짓 목사(선지자)의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말 듣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14 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마치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악을 발하고 있습니다(7 절).
탐욕의 생각들과 거짓된 생각들(13 절)과 같은 악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있습니다(15 절).
그 결과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21 절).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19 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8 절).
우리는 하나님의 경책을 들어야 합니다(10 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거짓을 다 버려야 합니다(13 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15 절).
그리고 우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16 절).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16 절).

"생각의 결과"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는 우리들의 "생각의 결과"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
가족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렘 6:19, 21).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엡 2:1)(중생)(과거 살리심),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롬 8:13; 고전 15:52-53; 살전 4:16)(영생)(미래 살리심).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사(롬 8:9)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며(요일 1:3) 알아가게 하시면서(요 17:3)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사(갈 5:22)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종계명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케 하시므로(마 22:37, 39)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중생'과 '아직도' '(완전한) 영생'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생활인 영원한 생명과 평강(롬 8:6)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생명) (현재 살리심).

생존의 비결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 4:4).

섞인 믿음

찌끼와 혼잡물과 같은 믿음 (사 1:25), 섞인 믿음 ...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주중에는 세상과 자신을 믿는 믿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는 믿음,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유익이 없으며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무수한 재물(11 절),

예배당만 밟는 우리의 발걸음(12 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리의 모임들과 집회들(13 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며 지기에 곤비한 우리의

절기예배들(14 절),

우리의 섞인 믿음은 고통의 용광로를 통하여 정화될 필요가 있다.

선대하는 다윗과 그의 소년들

다윗은

자기를 학대한 사울 왕을 선대했는데(삼상 24:17),

다윗의 소년들은(25:12)

자기들을 모욕한(14 절) 미련한 자요(25 절) 불량한 사람(17 절)인

나발의 하인들을 매우 선대했습니다(15 절).

학대나 모욕을 선으로 바꾸사(창 50:20)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 8:28)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시 34:8)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하는 자에게까지도

선대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삼상 3 장, 특히 18 절).

선한 말씀 vs. 불길한 말씀

만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우상을 두면
하나님의 모든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선한 말씀이,
불순종하면 모든 불길한 말씀이
신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수 23:7-15, 특히 15 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는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사 40:11).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막 10:18),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자(롬 12:2),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므로(8:28)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시 34:8)
선을 행함으로(엡 2:10)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벧전 3:16-17; 4:10).

선행으로 막아야

우리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나 욕하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그 비방하고 욕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벧전 2:12, 15; 3:16).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 분리하는 삶입니다(느 13 장 3 절).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를 움직여 주시길 ...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를 움직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삿 13:24-25).

성령님의 역사란 ...

성령님의 역사란
우리가 많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사
그 말씀을 겸손히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사
그 뜻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제를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다면(요일 1:3),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4:8, 16)의 뜻대로(2:17)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14:6)를 믿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되(3:23)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하므로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3:18).

"성령의 검"에 "익숙한" 성경 교사가 되어 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7)에
"익숙한"(스 7:6) 성경 교사(목사)가 되어 합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10 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9 절)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중생과 완전한 영생 사이에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생동력 있는 삶이란
종말론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한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재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므로 순종의 축복을 누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일 3:24)
우리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1 절)과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2:2; 3:16)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므로(1:3)
기쁨이 충만하여(4 절)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3:11, 23, 24).

그리할 때 우리는 순종의 축복 4 가지인 ...

- (1)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압니다(19 절),
- (2)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곧세게 합니다(19 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21 절),
- (3)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22 절),
- (4)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압니다(24 절)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므로(1:3)
순종의 축복을 누리야 합니다(3:19-24).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수록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주님 안에서의 소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시 71:5).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부를 누리면서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한가하고 평온하고 안전하며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을
매우 좋게 여길 것입니다(삿 18:7, 9, 1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미가"가 "고용"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17:10; 18:4).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
야망과 욕심이 있는 목사님이요 또한 돈을 우상화해서(18:19-20)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마 6:24).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 기뻐하면서 그러한 삶을 간구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도 야망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었던 여인

소망을 잃었던 여인 나오미(룻 1:12)
고향인 유다 베들레헬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1 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죽으므로(3 절)
그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늙어서 남편을 둘 수도 없었습니다(12 절)
그러기에 그녀는 아들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12 절).

그런데 결국에 가서 나오미는
그녀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그녀의 며느리인 룻이 낳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는데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습니다(4:15-17).

아들도 낳을 수도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여인에게(1:12)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4:17).

속임수로 유혹하는 자들

우리는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민 15:17-18).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악한 눈이 있어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잠 28:20, 22).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 하나님은 주셨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13).

그러므로
나는 내가 수고도 아니 하고 받은 것과
심지도 않았는데 받은 열매가
없어졌다고 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므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을 아껴야 합니다
(욘 4:6-11).

순종의 축복 4 가지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요일 3:11, 23, 24)

순종의 축복 4 가지가 있습니다:

(1)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압니다(19 절).

(2)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합니다(19 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21 절).

(3)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22 절).

(4)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압니다(24 절).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데 ...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범죄하고 있으니 ... 卍 (대하 33:23)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므로

우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레 18:30).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 중에는
아직도 악한 길을 걸으며
아직도 악행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을 말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렘 26:2-5, 8, 11, 19; 요일 3:15).

스스로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교회

어쩌면 주님께서서는 주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는 교회에게
'너희 교회에는 교인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교인 수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교인 수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삿 7:2-4)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왕래해서는 아니 됩니다(수 23:7-12).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입술로는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는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대하 36:16)

지금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있든지,
또는 세상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보내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12-16 절).

승리 후 패배 후 승리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후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이 성에서는 3,000 명쯤만 보냈다가
36 명 쯤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수 7:4-5).

아간의 문제를
아골 골짜기(괴로움의 골짜기)에서 해결한 후
다시금 아이 성과의 전쟁할 때에는
처음보다 약 10 배나 많은 용사 30,000 을 보내어(8:3)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4-29 절).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편견과 혼란과 거짓과 화평을 깨는 일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약 3:14-18).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소망"이 없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룻 1:12)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고(13 절)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한 모압 여인(18 절),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으려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2:2).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을 가리켜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4:15).

시어머니의 아픈 마음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는
과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의 젊은 두 과부 며느리들이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려는 모습을 보고
그녀들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룻 1:13).

시편 69 편 짧은 묵상

까닭 없이 주님의 종을 미워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의 평안은
자신들에게 덮이 될 수도 있습니다(시 69:4, 14, 19, 20, 22).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비방"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게 할 수 있지만
나를 무조건 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반기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시 69:4, 13, 14, 20).

하나님 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나의 미련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시편 69:5).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덩불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지만(시 142:2)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시 69:5).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숨김이 없듯이,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숨김이 없습니다(시 69:5, 17).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수치를 줄 뿐만 아니라 주님까지도 비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히 불타올라야 합니다(시 69:6-12).
극심한 고통 중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식구(친구)에게도
"낮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시 69:8).

그 때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뼈저리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2.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기신다(시 69:13).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신다는 사실에 사랑을 느끼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미련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므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므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시 69:6, 9, 13-14, 16-17; 고후 11:2).

내가 나의 형제에게도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간구는 '주님,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주세요'입니다(시 69:8, 18).

극심한 외로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나를 반기시며 많은 사랑과 많은 긍휼과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립니다

(시 69 편, 특히 13, 16, 30 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시 69:30-31; 행 13:22).

시험과 시련을 통한 깨달음?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되
내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의심이 듦)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약 1:2-8).

시험과 시련을 통한 훈련?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되
특히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약 1:2-5).

식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 ...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은 막내 동생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 왕을 따라 싸움에 나간 세 명의 형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를 위하여

"이 볏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을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가려고 진영에 온 것인데,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엘리압은 자기 동생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 때 다윗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삼상 17:13, 17-20, 28-29).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오해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 (존 칼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믿음 ... (약 2:26)

실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의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시 38:31).

심한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

우리가 심한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삿 6:6-8).

어쩌면 그 말씀의 핵심은

- (1)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 (2) "두려워하지 말라",
- (3)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10 절).

"심한 전염병"이 위험하지만 ...

"심한 전염병"이 위험하지만(시 91:3)
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6 절) 가운데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단의 "올무"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절).
사단은 마음이 단순한 신자들을
특히 거짓말(사 32:7; 요 8:44)로 미혹하고 "총동하여"(대상 21:1)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시 140:5; 딤펢전 3:7; 딤펢후 2:26).
그 목적은 우리 신자들의 "파멸"입니다(시 91:6).

십일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 장 8-10 절).

1.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받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2. 십일조를 하나님께 받치지 않는 것은 경제적(finance) 문제이기보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말라기 3 장 10 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못하기) 때문입니다.

쓴 맛을 본 후라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 그녀의 이름 뜻은 "나의 즐거움"...
그러나 그녀는 모압 땅에서 쓴 맛("마라"의 뜻)(1:20)을 보았다.
그녀처럼 쓴 맛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가 있다면 좋으려만...

나오미는 다 잃었지만(남편과 두 아들들, 오르바, 풍족함)
현숙한 여인(3:11)이자 그녀를 사랑하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얻었다(4:15).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기업 무를 자인 보아스를 얻었고
그 둘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벧을 품에 품게 되었다(16 절).
그리고 오벧을 통하여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마 1:5).
결국 모압 땅에서 쓴 맛을 본 나오미는 유다 땅에 돌아와서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
쓴 맛을 본 후라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